

2024. 2. 16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

안전처

도로시설처장	차범진	2290-6006
팀 장	정은수	3405-4563
안전처장	김지원	2290-6030
팀 장	문영철	2290-6009
누리집	sisul.or.kr	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서울시설공단, 첨단장비 동원해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나선다

- 2.16.(금)부터 내달까지, 겨울 동안 얼다 녹기 반복한 도로·교량 등 집중 안전점검
- 자동차전용도로 총 12개 노선 대상... 사각지대 드론, 열화상·내시경 카메라 등 활용
- 공단 “첨단 안전관리 체계 도입 및 강화 통해 ‘안전 서울’ 만드는 데 총력 다할 것”

- 다음 주,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‘우수(雨水)’를 앞두고 겨우내 얼었던 도로시설물이 녹으며 생길 수 있는 손상 등 상태를 확인,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·교량 등 점검에 나선다.
- 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, 이하 ‘공단’)은 해빙기를 맞아 2.16.(금)부터 내달 중순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대상 해빙기 집중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 - 점검 대상은 ▲올림픽대로 ▲강변북로 ▲서부간선도로 ▲동부간선도로 ▲국회대로 ▲언주로 ▲내부순환로 ▲양재대로 ▲북부간선도로 ▲우면산로 ▲경부고속도로 ▲강남순환로, 총 12개 노선 160개 교량과 터널·지하차도 및 옹벽이다.

- 공단은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시설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 침하, 콘크리트 떨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마다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한다. 이번 점검에서는 전용도로 포장부 손상,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교량 하부는 타격 조사 및 근접 육안조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.

- 특히 직접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, 열화상·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, 점검을 통해 손상이 발견된 시설물 중에서도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엔 즉시 보수하고 그 밖에는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, 추적 관찰하면서 순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.

- 공단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, 방지할 수 있는 ‘선제적 예방시스템’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 외주용역에 의존했던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토록 전환하고 있으며, 향후 ‘자산관리시스템’을 도입하여 빠르게 진행 중인 도로시설물 노후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.

- 공단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자동차 전용도로 점검 외에도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고척스카이돔, 청계천,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 점검도 향후 병행할 예정이다.

□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묵은 계절을 안전하게 보내고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한 시설물을 더욱 철저히 점검, 보완할 것”이라며 “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첨단 안전 관리 체계를 도입,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‘안전 서울’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(첨부) 관련 이미지

관련 이미지



드론 점검(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영 이사장)



도로시설물 지하차도 점검(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영 이사장)